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0년 3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끎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십시오

(4월 19일 자비심의 축일에서 8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나는 8월 2일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행사(4월 19일 하느님의 자비 축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서로 일치하여 기도하고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라’고 한 내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라. 너희는 이 똑같은 축복들 곧,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계시된 축복’과 ‘빛의 축복’을 8월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새로운 계획을 축하하여라.” (하느님 아버지 - 2020년 3월 13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과 천사들의 모후이신 마리아 축일 - 2020년 8월 2일

8월 1일 (토) 기도 모임

저녁 7:00: 기도 모임 - 기도회관 (United Hearts Chapel)

밤 11:30: 행렬 및 자정 기도 모임과 천상의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발현 없음)

8월 2일 (일) 기도 모임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오후 2:30: 행렬 및 오후 3시 기도 모임, 약속하신 발현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 2020년 3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만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하며, 아무런 원한이나 용서못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인류는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또한 그들의 두 손은 낙원에 들어올 때 내게 줄 온갖 선행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기 전 또는 죽은 후에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정화의 유배지가 바로 연옥이다. 연옥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너희가 연옥으로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이해하여라. 또한 세상에는 지옥에 갈 때까지 지옥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다. 내세에 대한 영혼의 믿음이 내 뜻을 바꾸지는 못한다.”

“거룩한 성모의 성심인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에 들어가거라. 그 안에서 너희의 마음은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는 개인의 거룩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거룩함을 너희 삶의 목표로 삼아라.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모든 흔적을 없애라. 이것이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너희의 준비 과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가시관에 대해 말하자면, 가시 하나 하나는 과거와 현재에 세상에서 저질러진 특정한 죄를 나타낸다. 내 눈으로 피가 흘러들어 가게 해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던 가시는 히틀러가 저지른 모든 잔학한 행위의 결과였다. 내 다른 한쪽 눈을 찔렀던 가시는 오늘날의 도덕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무시했거나 앞으로 무시하게 될 모든 이를 위해 가시관 전체의 고통을 견뎌다.”

■ 2020년 3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모든 의견 차이를 뒤로 한 채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의 사랑 안에서 공통점을 찾기를 촉구한다. 평화와 일치하는 용서의 좋은 열매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이는 아무도 내 뜻 안에 머무르거나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든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내 자비나 내 아들의 자비 위에 두지 마라.”

“정치적 견해는 공통점을 찾기 위한 것인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분열은 혼란을 낳는다. 다른 이들에게서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라.”

“내가 너희 각자를 창조하였다. 이 사실이 너희에게 일치를 위한 자극제가 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5):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 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2020년 3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중대한 시기다. 계속해서 너희 자신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너희가 내리는 결정들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거짓 종교와 거짓 신들이 국제 무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무고한 생명들은 머나먼 전장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전장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태내에서도 살해되고 있다. 요즘 시대에 내려지는 결정들은 세상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낙태 시술을 받겠다는 그 짧은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중요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은 모든 생명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양심이 일그러져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있다. 독선은 수많은 목숨과 수많은 영혼을 앗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 번, 내 신성한 뜻 안으로 돌아오라고 온 인류를 부른다. 내 계명에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길이자 선택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6-10):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

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2020년 3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 안에서 모든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은총과 모든 힘이 나온다. 나는 결코 시간 속에 사는 모든 영혼 중에서 아무도 저버리지 않는다. 어려움이 생길 때 너희는 나를 통해 인도된다. 너희 자신을 내게 의탁하여라.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또한 이것이 신뢰하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살 때는 모든 면에서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너희가 궁극적으로 나의 부성적인 보살핌을 신뢰하지 않을 때만 그런 것이다. 좋은 아버지는 절대 자녀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가장 약할 때 더욱 그렇다. 나는 너희의 완전한 아버지이며, 너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다. 나는 너희의 지상 삶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처리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와 내가 일치할 때, 너희는 가장 강하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0년 3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소행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탄은 두려움 뒤에 숨는다. 요즘 사탄은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를 이용해 세상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 넣고 있다. 이 질병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들은 마땅히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이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까지도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악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단지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감정적, 영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영적, 감정적인 힘의 원천인 성체를 영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이야말로 성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적절한 시기다. 군중을 피하거나 손을 씻는 행위, 심지어 새로운 백신 등 이것들은 모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너희의 가장 큰 힘은 아니다. 너희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현재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 성체 성사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사람들을 영적으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위해 용감하게, 그리고 서로 힘

을 모아 노력하여라. 교회 지도자들은 내 말에 주의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양떼를 너무 이른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7-8):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2020년 3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신뢰의 그릇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다. 또한 너희는 내 뜻이 너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신뢰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한다. 만약 너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신을 내게 의탁할 수 없다. 영혼과 나와 모든 관계는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다. 이 거룩한 사랑을 측정하는 지표는 나에게 대한 영혼의 신뢰의 깊이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그자는 너희의 신뢰를 깨뜨려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을 약화시키기를 원한다.”

“좋은 때는 내게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가장 필요할 때 저축해 둔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신뢰 또한 이와 같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나에게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4):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들어 주신다.

■ **2020년 3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내 아들의 지극히 거룩한 상처들을 공경할 때 너희는 내 부성적 성심의 사랑을 받는다. 하루에도 자주 이렇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죄에 대한 벌을 경감시키는 길이다.”

■ **2020년 3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혼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포기하는 영혼보다 나에게 자신을 의탁하기가 더 어렵다.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돌보려고 노

력하여라. 이것은 특히 다른 이들에게 너희의 시간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러하다. 때때로 너희가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기적인 태도는 은총을 가로막는다. 이기적인 영혼이 놓치는 은총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때때로 다른 이들을 위해 바친 사랑의 기도로 영혼이 얻을 공로가 기도를 바친 사실을 누설함으로써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위 등 너희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가능하면 항상 나와 나만 아는 일이 되게 하여라.”

“나는 자기 희생적인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는 그의 사랑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답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2:8):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 2020년 3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거나 더 심오한 것은 없다. 내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나는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너희에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똑같은 메시지다.”

“내 계명에 대한 너희의 순종은 모든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이다. 현대 도덕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기분에 맞추기 위해 내 계명의 뜻을 재정의하였다. 나에게서는 논의의 여지나 진리의 타협이 없다. 너희의 심판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의 계명만 어길 수는 없다. 너희가 심판 받을 때 두 손 가득 선행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내 계명 하나를 습관적으로 어겼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심결에 자신의 영혼을 잃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희의 구원을 잃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매 현 순간 선택을 내릴 때 내 계명에 따라 선택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기를 기다린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2:10):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 2020년 3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을 통해 너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 일치되어 있게 하여라. 두려움이든 의심이든 박해든 나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의 끝에는) 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하는 십자가들로 인해 너희의 마음이 압도당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라. 모든 십자가는 승리의 전조다.”

“너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청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여라. 그러면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너희는 승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 축일에 ‘하나되신 성심의 승리의 별판’에서 너희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을 크나큰 기쁨으로 고대하고 있다. 나는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얻어가기 위해 머나먼 곳에서 이곳 성지로 보내질 무수히 많은 천사들은 물론 이곳에 직접 참석하는 이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런 다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에도 용기를 잃지 마라. 너희의 신뢰 가득한 인내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8-9):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 2020년 3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최근 대중 매체는 이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에 대한 보도로 넘쳐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사례는 많은 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내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처럼, 누가 이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으며, 어디로 이 병이 확산되는지 등은 바로 내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내 뜻은 너희의 다음 숨을 주관하는 것과 같이 이 일 또한 주관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취하는 조치는 정당한 것이지만 내 뜻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효과적일 뿐이다.”

“모든 십자가가 그러하듯, 이 일에도 그 목적과 승리가 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목적은 나에게 더 의존하도록 인류를 장려하는데 있다. 너희의 최상의 보호는 바로 기도에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 안에서 나에게 의지하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의 보호를 구하는 법을 배워라. 기도에 대한 이런 의존이 바로 승리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6:4):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 2020년 3월 11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내 자녀들 중 특히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너희는 인간의 노력 하나에만 너희의 모든 신뢰를 두느냐?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의심과 불신은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태도의 나쁜 열매다. 나는 나의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며,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내 신성한 뜻으로 덮는다. 개개인의 매 현 순간은 내 뜻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불신하라는 유혹에 넘어갈 때 너희는 사탄의 힘에 굴복한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 온 주변에서 사탄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자신의 사악한 계획들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된다.”

“나를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곧 사탄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 내가 짜 넣고 있는 정교한 문양 곧, 나의 은총의 양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

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0년 3월 12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나라(미국)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 축일에 요청했던 기도 모임은 이제 최근의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성지에 모이는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때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리는 것과 같은 좀 더 안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이 축복을 내리는 것을 연기하겠다. 그렇지만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하느님의 자비 축일에 여전히 너희의 수호 천사를 성지로 보내기 바란다. 그들은 수많은 축복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내 부성적 성심 안에서 계속 일치해 있다. 이 일은 우리 손을 잠시 떠났지만 영구히 그런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은 악의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축복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어 있지 않다. 사탄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내 축복을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축복을 넣어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장소는 은총의 활동을 좌우하지 못한다.”

“나의 세 가지 축복의 승리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된 것 뿐이다.”

■ 2020년 3월 13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내 성심은 매우 비통하다. 나는 인간의 상황 때문에 취소되어야 했던, 기도의 상실로 인해 매우 애통하다. 나는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를 만나는 것을 몹시 고대했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8월 2일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지에 오게 되었다면 바쳤을 기도를 4월 19일에 똑같이 바쳐라. 나는 어디에서 기도가 바쳐지든 모든 기도를 다 듣는다. 나는 전능하다.”

“이 행사(4월 19일 하느님의 자비 축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서로 일치하여 기도하고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라’고 한 내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라. 너희는 이 똑같은 축복들 곧,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계시된 축복’과 ‘빛의 축복’을 8월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새로운 계획을 축하하여라. 사탄은 절대 우리의 인내심을 능가하지 못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는 내 아들이 승리하여 재림하기 전인 이 마지막 시대의 표징으로서 허락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즐기고 있는 세상의 마음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나의 시도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까지

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나는 대단히 슬프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았지만, 몹시 슬픈 가운데 이를 허락해야만 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7-8):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 2020년 3월 13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은총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일인 6월 21일을 기대하여라. 그런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한 축일인 8월 2일을 기다려라. 은총은 풍부히 베풀어질 것이다. 우리는 질병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의 위협 없이 이 두 날에 만날 것이다. 8월 발현은 또한 천사의 모후인 내 축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 2020년 3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매우 힘든 시련이다. 그러나 어떤 질병도 너희를 내 은총의 힘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오직 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여러가지 편리용품은 물론 생필품까지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너희는 내 권능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이 사실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 십자가는 지금 전 세계의 내 모든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모든 선을 없애려고 하는 악의 전면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조심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 증상이 식별되었고, 증상을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상을 덮고 있는 악은 그리 쉽게 식별되지 못해 피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당연한 조치로서 너희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촉구하는 이때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함께 모여 너희의 기도로 천국을 가득 메우기를 촉구한다. 이 질병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준비 없는 죽음을 맞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기도가 목마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20년 3월 14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함께 이 시련에 맞서는 가운데 나는 너희가 끈기 있는 인내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단지 격려의 말뿐일지라도 서로 서로 도와라. 너희는 이 시련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사탄은 너희가 인내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종에 죽기를 바란다.”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기도를 비축하는 것이다. 영혼을 죄로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사탄은 또한 이 질병에 노출되도록 너희를 유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도 알고 있다. 늘 조심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 2020년 3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와 죄는 닮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둘 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작된 다음에는 그 영향이 눈에 나타난다. 죄는 영혼에게서 나와 영원한 유대를 벗어나고, 마침내 최악의 경우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앗아간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건강을 즉시 앗아가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앗아간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많은 과감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업체와 학교 등은 문을 닫았다. 세상에서 죄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죄로 가득찬 세상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지금, 바이러스만큼이나 치명적인 죄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번창하도록 용인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확실히 위험하긴 해도 오직 목숨만 앗아갈 수 있을 뿐이지만, 죄는 영혼의 구원을 앗아갈 수도 있다.”

“나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위험에 대해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 말하고 있다. 진짜 위험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애착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20년 3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요즘 시대의 적인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자. 너희가 업체들을 폐쇄하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기에 바쁜 이 와중에 두려움 때문에 나를 너희 마음에서 밀어내지 마라. 내 뜻이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기도를 통해 너희의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 부성적 손이 너희의 손을 감쌀 것이다.”

“안전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마라. 특정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과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잃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 나는 나와 화해하도록 세상의 마음을 부르고 있다. 너희의 삶은 현재 단순화되고 있으며, 많은 이가 기도 안에서 내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지금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시기가 되게 하여라. 기도와 희생,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을 이해하여라. 백신이 너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사랑과 나에 대한 신뢰가 너희 마음속에 주입되게 하여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모든 현 순간 안에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91 장):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새잡이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 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네 곁에서 천 명이,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오히려 네 눈으로 바라보리라. 악인들이 벌받음을 너는 보리라. 이는 네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네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케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 2020년 3월 17일 - 성 파트리치오 주교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최악의 상황 한가운데 있다. 나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았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꾸준히 매사에 신중하여라. 불필

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만 하는 때다. 이것이야말로 이 전염병에 대항하는 너희의 무기다. 이것이 검증된 진정한 ‘백신’이다.”

“너희가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하면, 이 위험이 지나가는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도록 장려되어야만 한다. 기도는 세상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려는 사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다. 또한 기도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이끌며, 신중함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들여다본다. 이 전염병은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너희 마음속에 영적인 요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양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20년 3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나라(미국)와 세계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있는 지금, 거룩한 성모도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를 위해 중재하고 있음을 부디 깨달아라. 나의 베푸는 은혜는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특히 이 바이러스라는 십자가는 일찍이 그 전례가 없는 만큼, (나를) 신뢰하는 너희의 응답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사실상 거의 온 나라가 격리됨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내 은총은 절대 격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 은총은 언제나 너희의 현 순간의 일부이며, 어떤 질병도 결코 내 은총에 도전할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내 은총에 의존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할 때다. 예상보다 더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여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영적인 일치는 물리적인 일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전염병은 그저 세상을 사로잡기를 원하는 사탄의 욕망의 한 증상일 뿐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20년 3월 19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더욱더 덕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사탄은 모든 덕에 반하여 맞서기 때문에 너희는 그자를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너희가 인내하려고 노력하면 사탄은 성급함을 부추긴다. 너희가 용기를 실천하면 사탄은 낙담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너희의 일상이지만, 특히 요즘같이 큰 시련의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다른 이들에게 덕의 모범이 됨으로써 너희 주변의 영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 전염병은 육체뿐 아니라 영적, 감정적인 면으로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난 일이 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 부성적 성심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2020년 3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선과 악, 모든 것을 본다. 너희의 아버로서 나는 무엇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의 자택 감금을 준비 없는 죽음 곧, 죄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될 이들을 위해 봉헌하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의 조기 해결을 위해 기도하여라.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서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런 이유들은 너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지금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의 요새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시간이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는 쪽을 선택하면, 거룩한 사랑은 너희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해줄 것이다. 너희의 걱정을 나의 부성적 성심에 털어놓아라. 너희가 나에게 내맡긴다면 나의 권능은 전능하며 너희를 위한 내 뜻도 그러하다. 두려워할 이유를 찾는 대신 신뢰할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지할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서 모든 과다함(excesses)을 없애버리고 거룩한 사랑에 집중하여라. 거룩한 사랑은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자 내 뜻이다.”

“사탄은 너희가 영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탄은 너희가 (바이러스라는) 이 십자가를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서로에게, 또 나에게, 영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너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자 너희의 힘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6):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20년 3월 2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함에 관한 진리 안에

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줄어들고 너희의 일상 생활에 대한 제약이 풀릴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오직 진리를 받아들여야지만 나의 충고대로 집에 머물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생존을 위한 나의 이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이 너희를 설득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희생의 정신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여차피 지금은 사순절이라는 희생의 시기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약속한다. 진리에 전념하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여라. 내 아들의 부활의 시기가 너희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과 같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너희의 승리 또한 시간이 지나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진리 안에서 참고 기다리며 용기를 가져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영적, 육체적, 감정적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지금은 이 모든 면이 공격을 받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 2020년 3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도 외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부디 그렇게 하여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너희는 언제나 내 은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 2020년 3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격리’되고 있는 요즘 너희는 너희의 안녕을 염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천국으로 승천한 후 그의 사도들이 은둔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그들 또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일치하였다. 거룩한 성모는 그들이 대중 앞에 나설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 확고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거룩한 성모는 오늘날 너희 모두와 함께 하며 너희의 갇힌 상태의 필요성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 시련은 좀 더 견딜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시간을 너희에게 유리하도록, 또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리석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은총을 받게 될 것이

다. 사도들을 너희의 거룩한 모범으로 삼아라. 진리 안에서 계속 일치하여라. 진리란 너희의 행동이 너희는 물론 다른 수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 기쁨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2020년 3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만 본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기도한다면 너희가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였고, 세례자 요한은 강 한가운데서 기도하였다. 내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기도하였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너희가 교회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가 (대피해서) 머물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여라. 희생과 필요 가운데 바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 너희의 약함 속에서 너희는 힘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도록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너희의 마음을 기도의 거처로 만들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6:8-10):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니이다.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몹시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간간에 물러가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3:20-21):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2020년 3월 2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모두에게 곧, 세상의 마음에게 말한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머무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개인 경당으로 만들어라. 너희의 창조주인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내 계명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

아라. 수많은 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굴복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도록 내게 더 가까이 오도록 모든 이를 초대한다. 각 현 순간을 내게 다오. 너희의 믿음 이 위기의 시대에 희생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너희 마음의 작은 경당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년 3월 25일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 탄생 예고의 밤에 내 성심을 기도에 열었을 때 나는 내 성심에서 나를 유혹하던 모든 이기적인 계획들을 비웠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어떤 등불보다도 더 눈부신 빛에서 걸어 나왔다. 빛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친절함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도 분명한 어조로 내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성심 깊이 새겨졌다. 내가 그날 밤을 회상할 때면 나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오로지 ‘예’라는 대답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난다. 그것은 나의 뜻이 우선 사항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 당신의 명령대로 다스리실 것임을 신뢰하였다. (주님 탄생 예고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 나는 그저 하느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을 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미래의 순간들을 그분의 지극히 완전한 뜻에 의탁하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길은 무질서한 자유의지로 포장되어 있다. 항상 너희 마음속에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나는 오늘날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성심은 너희의 소박한 피신처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관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의 뜻은 너희의 구원이라는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2020년 3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시간이 지

나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의 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각각의 현 순간은 다음 현 순간으로 가는 관문이다. 미래에 대한 너희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계획이 너희를 위해 서서히 펼쳐지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이제 너희는 공통적인 위기 하나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통치권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 두루 미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매 현 순간이 펼쳐지면서 부디 거룩한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의 공통점이 되게 하여라. 나에게, 그리고 나의 베푸는 은혜에 의존하여라. 기도를 너희의 동지로 삼아라.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와 나의 뜻에 대한 더 큰 존중심을 가져라.”

“내 자녀들아, 나는 항상 너희 편이며 너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0년 3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나의 베푸는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대다. 인간의 안건이나 일정, 계획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뒤로 미루어졌다.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데 이 시련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두려움은 달아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졌다. 즉, 기존의 건강 질환이 있거나,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같은 십자가의 여러가지 측면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보며, 너희가 나의 전능을 이해하도록 초대한다. 나는 모든 생명,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진실로 염려한다. 십자가는 인류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너희를 실망시킬 때 나에게 의지하여라. 내가 너희의 힘이다.”

“이 십자가 곧,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인류에게 그들의 나약함과 나에게 대한 그들의 의존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 애석하게도,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2:29-31):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 2020년 3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은 이례적인 시대로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다. 노아는 홍수의 위협을 받았고, 요즘 시대에 너희의 안녕은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그치기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 내 자녀들아, 너희 또한 이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한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적 곧, 비의 위협을 받았지만, 오늘날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곧,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위협 또한 실제로 존재한다. 이 둘의 차이는, 오늘날 너희는 기도하라는 내 부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이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현대 통신 수단의 노력으로 너희는 오늘날의 위협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위협은 너희의 허를 찌르고 있다. 그러나 기도는 너희를 보호하고 형세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 너희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단합된 기도 운동에 마음으로 함께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창세 8:10-12):

그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2020년 3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 직면하여 너희는 두려움과 주의를 구별해야만 한다. 주의는 신중함에 근거한다. 신중함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줄 조치들을 준수하는 지혜를 말한다. 두려움은 나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력만을 신뢰한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류가 나와, 나의 베푸는 은혜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국가로서, 너희 (나라)는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의 삶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광

범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계속 대기하는 신중함을 얻기 위해 현 순간 기도하여라.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너희의 최선의 보호다. 그런 다음 나의 천상적 보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뜻이 이 사악한 위협에 맞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0년 3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인내의 덕을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 왔다. 인내는 성과나 실패 등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또한 사건들이 전개됨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인내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현 순간 안에 머무른다. 이것이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는 용기(courage)의 단짝이며 어려움 가운데서의 끈기다. 인내는 굳셈(fortitude, 용기)의 근간이며 내 뜻에 대한 신뢰다. 인내는 모든 덕의 자매로서 선을 강화시키고 악에 맞선다.”

“모든 시련중에 인내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 안에 너희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깊은 거룩함의 길을 따라 빠르게 진보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9-10):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0년 3월 3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먼저 용기가 없다면 너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없다. 너희를 위한 내 뜻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다면 너희는 용기를 낼 수 없다. 인내는 어떤 현 순간 속에

서도 너희가 내 뜻에 내맡기도록 돕는다. 너희의 내맡김은 너희를 위한 내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너희의 자유의지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는 나에게 의탁하는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모든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영혼에게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다. 모든 십자가는 신뢰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너희가 먼저 어려움을 나에게 의탁한다면 너희는 절대 너희 혼자 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랑 가득한 신뢰를 가지고 내 뜻에 내맡길 때 십자가는 가벼워진다.”

“인내하는 용기와 내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내맡김,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적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적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손가락 목주 짧은 태아목주



확대된 목주알



태아목주(5단)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 (5단) - \$29.95 짧은 태아목주 - \$14.95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

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십시오

(4월 19일 자비심의 축일에서 8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게시된 축복

빛의 축복

“나는 8월 2일 하나된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행사(4월 19일 하느님의 자비 축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서로 일치하여 기도하고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라’고 한 내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라. 너희는 이 똑같은 축복들 곧,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게시된 축복’과 ‘빛의 축복’을 8월에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0년 3월 13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과 천사들의 모후이신 마리아 축일

2020년 8월 2일 (일) 오후 2:30 PM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마라나타 샘과 성지)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어: 440-327-8006 www.holylove.org
한국어: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